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가을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겨울이?

10월의 시작을 중국은 국경절로 맞이했습니다. 7일간의 휴가기간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 좀 센티멘탈 해졌는데 정신차리라는 듯 낮최고가 한자리숫자로 바뀌면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현지인들은 재빠르게 내복을 꺼내 입었지만 대한의 건아는 청바지 하나로 이겨내려고 버티다 결국 겨울바지로 내복을 대신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부터 다시 10도 후반대로 온도가 올라간다니 벌써부터 기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룡정종합고중 24주년

지난 9월 12일은 룡정종합고중 24주년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120년 전 1906년 룡정의 서전대야에서 한민족 최초의 근대교육이었던 서전서숙을 개교하셨던 이상설 선생님의 후손인 이상현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2년에 시작된 룡정종합고중은 5년의 짧은 생으로 마쳤지만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스스로가 종합고중의 졸업생임을 기억하고 사회에 그리고 후대에 우리 학교와 같은 학교를 재설립하고 싶어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친 학교였습니다.

초대교장선생님이셨던 이상현교장선생님이 신혼초에 교수에서 은퇴하면 작은 시골학교 교장을 하고싶다고 하셨다는 것을 사모님은 기억시고 2002년 북간도의 칼바람을 맞기 위해 출발하는 교장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올해 24주년을 기념하고 싶어하시는 팔순을 맞은 교장선생님을 사모님은 또 보내주셨습니다.

5년간 모든 재정을 담당하셨던 박종근이사장님도, 명예 졸업자인 최한 형제도, 학교의 운전기사를 자임하셨던 이일남 회장도 모두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래도 그때는 다들 젊은 나이였었던 추억이었습

니다.

이런 추억들이 아마 이곳에서의 삶을 지탱하는 귀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이 학교에서 배운 귀한 가치관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날들이 온다면 아마 우리도 천국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하며 혼자 웃음지어봅니다.

아이들이 사랑했던 아내 임희출도 제자들의 엄마역할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

강건너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방문하시고 함께 사역을 얘기하고 도움을 드리는 평범한 나날이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은 없었지만 많지 않은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 본부의 ○총무님이 주신 봉투는 당일 교회에서 식사 중 강건너로 보낼 기증차량의 수속비가 너무 올라서 수속비를 협력해달라는 선생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각각의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유하며 서로 십시일반으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합니다.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서로의 사역은 서로의 사역이었지 모두의 사역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서로의 사역이 모두의 사역이 되고 모두의 사역이 서로의 사역이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눠 채워가는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기도제목으로 드렸던 종자는 그곳에서 다른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 전달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달이 안되었으면 지금까지 확인하느라 전화가 계속 왔을테니 말이죠.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이제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들을 나눈 후 제가 도울 일들과 제가 강건너에 들어가 함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스스로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저에게 이 시간들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강건너 다니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떨어져가는 자신감이 아마 저를 은퇴의 길로 들어 가게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27년, 미국에서 살았던 16년, 중국에서의 삶 25년은 나그네의 삶이었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노년을 살아야 하는 삶이기에 더욱 두렵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의 삶은 연장선안에 있기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지만 독거노인의 삶은 어디나 똑 같은 것 같습니다.

해야할 일들

12월 4일 한국으로 가는 귀국항공편을 구매했습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기 이해 한두 달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 기간 함께 만나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감사의 시간을 나누고 때로는 내년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저를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섭이가 입원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첫 한달은 아들의 정서 파동을 염려하여 면회를 자재해달라고 하여 면회를 자재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이달엔 면회를 가서 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 손모아 주세요 >>

- 1) 예전 같지 않은 엄격해진 법제도 아래에서 안전하게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조건(비자, 생활규제 등)을 구비하고 지낼 수 있도록

- 2) 강 건너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의 해관통과와 물자공급의 어려움을 아시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기를
- 3) 내년 강 건너 사역에 대한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전에 2017년 보위부원이 내게 물건을 사달라고 전시회에 데리고 갔는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처음 저를 만난 사람이 사달라는 걸 알아채지 못해 무시한 적이 있는데 이 보위부원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면 저를 무엇으로 엮어서 체포할 지 몰라 염려됩니다.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되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없기를)
- 4) 12월에 신청할 여권과 비자(여권을 갱신하면 두 달 이상,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비자만 신청하면 한달정도)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기간 직원이 혼자서 사무실 운영(겨울 날씨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을 잘 할 수 있도록
- 5) 동섭이가 비록 입원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동섭이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 6) 종종 자주 독거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의 보호와 안전에 의지할 수 있도록

<<구좌변경에 대한 안내>>

올해 안에 후원구좌를 바꿔 주십시오.

하나은행 219969468084-37(장의성)로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소속단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구좌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